

경제

# 서민 가계 이자 폭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이어 신용대출 금리도 속속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고물가와 함께 이자 급등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주택대출 이어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

## 은행권 이달부터 0.10~0.05%P 올려

## 고물가에 고금리 ... 경제 악영향 우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이어 신용대출 금리도 속속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고물가와 함께 이자 급등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도 속속 인상=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이달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5월 신용대출 금리를 0.08%포인트 인상한 이후 지난 달 0.35%포인트 높이는 등 석달간 총 0.53%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우량업체 임직원 대상 신용대출의 금리는 지난 4월말 6.62~7.85%포인트에서 1월 현재 7.15~8.38%로 높아졌다.

기업은행도 이달 초 신용대출 금리를 지난 달 초보다 0.10%포인트 높였

다. 4월초 7.17~13.17%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7.32~13.32%로 0.1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신용대출 기준금리를 기간에 관계없이 일제히 0.05%포인트 인상했다.

◇은행채·CD발행 증가 ... 금리 추가 상승 전망=금융업계는 은행들이 은행채와 CD 발행을 지속하고 있어 신용대출 금리의 상승세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의 은행채 발행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9조2천89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7천197억원(14.5%) 급증했으며, 우리은행의 CD 발행잔액은 1조2천543억원(7.6%) 늘어난 17조5천42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CD 발행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6조7천35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1천179억원(51.8%) 급증했다.

특히 이달 21일부터 은행들이 은행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에 발행액의 0.04%를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은행의 신용대출 및 고정금리형 주택대출 금리가 동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가계대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보증인 없이 대출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더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해야 돼 대출금리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 경제 악영향 우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직후 수준인 5%대로 치솟은 데 이어 대출금리도 무차별인상되면서 서민 가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리은행의 이번 주초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달 13일에 비해 1.00%포인트 급등한 7.55~9.05%로 고시되면서 최고 금리가 9%를 넘어섰다.

대출 금리가 연 1%포인트 오를 경우 1억원을 빌린 대출자의 이자부담은 연간 100만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금리 오름세가 물가 상승과 함께 가계의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추락 증시 ... 1600마저 '아슬아슬'

국내 증권시장이 고유가와 미국 신용위기, 경기둔화 등 '삼각파도'에 흔들리며 급락세를 지속해 바닥권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최근 주가하락은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심리적인 위축상태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어 추가하락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일 42.86포인트(2.57%)나 떨어진 1,623.60에, 코스닥지수는 23.98포인트(4.13%) 급락한 556.79로 거래를 마쳤다.

◇장기 상승세로 피로에 불확실성 겹쳐 조정중 = 한국을 비롯

## 외국인 대량매도 코스피 42포인트 급락

## "지금도 우량주 저가 매수 호기" 평가도

한 글로벌 증시의 최근 조정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 간의 장기 상승세에 따른 피로 누적과 불확실한 증시환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증시는 5년 간 장기밸리 후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상승과 미국 신용위기, 경기둔화라는 악재가 돌출되며 조정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600선 사수도 낙관 못해 = 미국과 유럽, 대만 등 글로벌 증시가 연초 전저점을 모두 하향 이탈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탄탄

한 흐름을 보여준 국내 증시도 연초 저점인 1,600선이 붕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스피는 그동안 잘 버텨왔으나 최근 반등의 실마리를 못찾고 하락세를 거듭해 연초 장중 저점인 1,530선은 물론 증가기준 저점인 1,57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국내 증시 간판종목들은 경기선으로 불리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 확실한 바닥권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낙폭과대 대형주 관심가져 불만' = 증시가 산적한 악재들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우량주들을 싸게 살 수 있는 호기라며 저가매수를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6월 50.4로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근거로 글로벌증시의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소비자신뢰지수가 60이하로 떨어진 후 3~6개월 뒤 주가가 100% 올랐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商議 “세제 지원 확대를”

##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 '세제 개선 100대 과제' 선정 ... 정부 건의

고유가 시대에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한 '2008년 세제개선 100대 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건의문은 조세특례제한법 16건, 법

인세법 28건, 소득세법 8건, 부가가치세법 8건, 지방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건, 종합부동산세법 4건, 개별소비세법 5건, 기타 11건 등 100건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회의는 우선 기업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만 세액공제(투자액의 10%)가 적용되는데 적용기한을 최소한 3년 이상 연장하고 해외자원개발

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현행 3% 공제를 7%로 인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1%이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 LPG에 대해서는 무관세인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와 관련해서는 건설사가 보유한 착공 전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해 중부세 과세를 유예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를 촉구했다.

또한 기업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 관련 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중부세 과세표준 적용비를 동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중부세 과세 유예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올 소득지표 '마이너스' 위기

## 연구기관들 국민총소득 등 10년만에 감소세 전망

고유가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세마저 급격히 꺾이면서 올해 소득지표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소득지표들은 2차 오일쇼크 때인 80년과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 각각 감소했을 뿐 그 외에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소득지표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1년만 더 나빠진다는

뜻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를 더 침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2일 주요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소득(GDI)과 국민총소득(GNI) 등 소득지표들은 98년 이후로 10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총소득(GDI)의 경우 경제성장률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

익'을 반영해 산출하는데 올해 성장률은 4%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손실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보면 성장률은 1분기 5.8%에서 2분기 5%대 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도입단가는 같은 기간 배럴당 90.8달러에서 110.0달러로 급등했다.

1분기 GDI가 전년동기 대비로 0.2%증가하는데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당장 2분기부터 마이너스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총소득(GNI) 역시 1분기에는 1.3% 증가했지만 2분기에는 감소세가 예상된다. /연합뉴스

## 멈춰선 기아차 스포티지 라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주력제품인 스포티지 생산라인이 2일 멈춰섰다. 광주공장 노조는 이날 산별 중앙교섭과 쇄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주야 2시간씩 파업을 들어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현대·기아차 '잘 나가네'

## 6월중美 판매량 7만8천여대

## 시장점유율 첫 6%대 넘어서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 6월 미국시장에서 자동차 7만8천325대를 팔아 현지 시장점유율 6.6%로, 지난해 6월 보다 실적이 1.3% 늘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 미국 시장점유율이 6%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대차의 경우, 한달간 5만33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시장점유율 4%대에 첫 진입했다.

현대차 엑센트는 지난달에 6천914대, 엘란트라에는 1만4천482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각각 70%, 51%씩 판매가 신장됐다.

쏘나타 트랜스포머는 지난해 보다 12%, 전월보다 24% 증가한 1만6천875대가 팔렸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1985년 미국시장 진출 이후 월 최대 판매 기록으로, 올해 3월 이후로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소형 및 중형 차량 공급을 확대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고유가에 웃는 정유업계

## 2분기 매출·영업이익 '깜짝실적' 예고

세계적인 고유가 속에서 국내 정유업계가 올 2·4분기 깜짝 실적을 보일 것이 확실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에서 지난해 동기나 지난 분기와 견줘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구체적 수치는 말하지 않지만 관측은 성채를 거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증언업계도 이들 회사와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다. SK에너지 내부에서는 2·4분기 영업이익이 1·4분기의 3천991억원보다 훨씬 증가한 6천550억원에 이

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S칼텍스도 마찬가지다. GS칼텍스는 1·4분기는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해 매출은 늘었어도 순이익은 232억원 적자를 보는 바람에 올상을 지켰었다. 하지만 2·4분기에 업이익 등 경영지표를 예상했던 것보다 높고 있다. 에스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2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유업계의 마음은 편치 않아 보인다. "서민들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혼자 배불리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연합뉴스

# 다단계시장 급격 위축

## 일부 업체 사법처리 영향 매출액 9.2% ↓

다단계 판매시장이 일부 대형 업체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다단계 판매시장 현황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체는 지난해 65개로 전년보다 2개가 줄었고 총매출액은 1조7천743억원으로 9.2% 감소했다.

다단계 판매업체들의 매출 규모는 2004년 4조4천719억원에서 2005년 3조4천314억원으로 줄었고, 제이유네트웍스와 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상위 2개사가 폐업한 2006년에는 1조9천371억원으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매출 순위 2위인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대표가 판매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 판매조각이 붕괴되며 시장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제이유스테' 등 사기성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소비자들 사이 다단계 판매업체를 외면하는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 국민 건강식품 '홍삼' 최고

## 작년 3천270억여치 판매 1위 올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홍삼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7천234억원 가운데 홍삼제품이 3천270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날 발표한 '2007년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345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56개 품목, 1만 934건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2% 성장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홍삼제품이 총 건강기능식품 매출 가운데 가장 큰 42.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알로에 제품 797억원, 영양보충용제품 785억원, 인삼제품 350억원, 글루코사민함유제품 2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총매출액 7천234억 가운데 국내판매액이 6천88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6.7%가 감소한 346억원(환율 1달러당 932원 기준)에 그쳤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LGI노텍	개발구매(부품 개발구매 업무지원)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04	062-950-0458
한진기공	기계설계/NC밀링기사/관리직/정규직	고졸/경력1년	2200~2400	07/04	062-953-1642
로템건설	건설회사 영업(입찰)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05	062-574-9401
케이엔비건설	건설현장/인바운드/미납상당/해피콜 상담원	1600~1800	07/07	062-224-5863	
우리	일선사무 및 경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07	062-361-7106
대창 E&T	매장관리/개통업무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7	062-383-6831
IT성공	ITM/영업관리/경리/알바/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07	070-7560-1515
에너그린(광주지점)	공무/설비/CAD/기계설계 신입 및 경력직	회사내규	07/08	062-943-8802	
전통	구내통신 유지보수 남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08	062-527-6611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08	062-601-7213
웨이하우스	웨딩플래너(상담,관리,TM)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2-222-2344
헤어아트	피부관리실 카운터 매니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0	062-228-2264
엔하이테크	당사 광주사업장에서 품질생산 담당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32-851-035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